

숲속에 사는 사람, 숲밖에 사는 사람 : 生態人類學的 觀點¹

전 경 수²

People within the Forest, People outside the Forest : A View from Ecological Anthropology¹

Kyung Soo Chun²

ABSTRACT

One might have a retrosp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st and human being from the viewpoint of ecological perspective. It is no doubt that most of the fossil humans should have lived on the forest and the latter provided foods and shelters for humans from their beginning stages. Since the so-called agricultural revolution, humans have extensively started to exploit the forest which had been their cradle.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created another situation against the forest in terms of the quality of ecosystem. These two revolutions have set up the so-called civilization which seems to have been based on the sacrificial oblation of the forest. The cradle for human being has been kept exterminating for the shak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miracle." This might be a synoptic history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forest and human beings in a sense.

designates the behavioral aspects of human being against the forest and people consider the forest only as exploitable resource in this context, and the latter means that people live on the forest and strive to adapt the order of forest ecosystem. The resourcism has developed a strategy of colonialism to exploit the forest and provided a winner's position for the human beings against the forest. This idea and behavioral perspective seems to have started the backfire against the exploiter who is the owner of the civilization. However, there are different philosophies and ideas to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st and human beings. People within the forest who are mostly considered as "primitives" still keep their idea of the ontology of the forest.

There is a theoretical assumption of the "socio-natural system" to look into the ecosystem. The forest could be viewed in the above frame of analysis. There are five variables: environment, resource, technology, organization, and ideology. Ideological aspect of the forest can be explained in the context of belief systems. Forest has a meaning of religion and rituals and people within the forest should admire it in anyway of religious reasons. This aspect of the forest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environmental aspect of the forest. People within the forest acknowledge and practice the above idea. People outside the forest have lost the idea, however, at the cost of acquiring the civilization. They have expelled themselves from the forest and divided the socio-natural system of the forest by way of colonialism.

The efforts like agroforestry and social forestry would be strategies for recovering the idea of ontology of the forest as well as the sense of community including the forest and human being. People within the forest will be a prospective model for the future socio-natural system of the forest for the people outside the forest. At this point, an ecological anthropologist can work with the forest specialists.

Key words : Civilization, ecological anthropology.

¹ 接受 1990年 6月 23日 Received on June 23, 1990.

서울대학교 林學科 주최 심포지움 "인간, 환경 그리고 산림자원"(1990년 5월 11일)의 招講論文

² 서울대학교 人類學科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1. 서 언

나는 경제학이 중요한 개념으로 제안해놓고 있는 개념인 消費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생태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소비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을 구석이 없다. 소비라는 개념이 의존하고 있는 철학은 再生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의 운영법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물론 이때 필자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생태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소비라는 개념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 바로 “쓰레기”일 것이다. 쓰레기라는 것은 재생되지 않고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소비라는 개념은 생태학의 利用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는 것이 미래의 인간을 위해서 바람직한 구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태학의 이용이라는 개념은 생태계의 유지와 관련될 전제로 할 때, 이용 대상의 보속수확과 결과물의 재생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게 되면, 이용의 개념이 안주하고 있는 철학에서는 쓰레기라는 것이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후 가장 이용을 많이 해오고 있는 것이 삼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 삼림과 인간의 관계를 조망해 보는 것은 인류학도로서도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삼림이라는 것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삼림생태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인식을 밝히는 작업을 위해서도 뜻있는 일이다. 그리고 삼림에 대한 인간의 행위양식에 관한 구체적인 양상들을 살펴보는 것은 생태계 속에서 인간의 지위와 그 지위에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삼림생태계를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와 태도 그리고 사고방식이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를 고려하는 생태철학은 궁극적으로 딜레마를 맞게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중심적으로 밖에 사물을 보지 않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사상이 워낙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이 역사적이라고도 상황

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문제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지나친 진보주의라고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선 본 논문은 숲에 의존하는 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 행적이 초래한 생태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파괴에 귀착되고 있다는 정신에서 인간과 삼림의 관계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즉 인간중심주의는 인간파괴의 장본인일 수 있다는 전제가 본 논문의 논지를 흐르고 있으며, 그 인간중심주의의 희생물이 된 숲과 희생의 과정에서 나타난 삼림파괴가 인간파괴의 메카니즘으로 작용되는 생태학적 구도를 설명해보고, 따라서 삼림회복은 곧 인간회복의 길로 열리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내용이다.

논문작성의 이러한 취지 때문에, 본 논문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작업에 열중하기 보다는 필자의 주장을 설득적으로 설명하려는 의도와 선언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것이 본 논문이 안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산림과 인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의뢰받았으나, 산림속의 인간이라는 생태학적인 인간의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필자는 주어진 제목을 필자의 의도대로 변경하였다.

2. 숲과 인간의 관계사

인간의 출현 즉 인류 진화과정의 첫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학문영역을 논하는 체질인류학자·고생물학자·지질학자·고고학자들이 거의 합의를 본 내용중의 하나는, 인간이 숲으로 부터 들관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것을 人科化(hominidization)과정중에서 지극히 중요한 사건들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간화의 제1번 주자로 알려져 있는 라마피테쿠스(Ramapithecus, 1200만년 전 부터 900만년전 까지 살았던 종으로서 유인원과 흡사하나 차이가 있다)는 주로 숲속에서 유인원들과 유사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 500만년 전후로 등장한 화석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Australopithecus)도 숲속이 생활의 주무대였으며, 현생인류의 직계조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호모하빌리스(Homo habilis, 약 300만년전 동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화석인류)가 인과화의 과정

을 거치면서 현생인류로 진화해온 인류발생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숲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왔고, 인류라는 종의 진화가 가능한 서식처가 되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도구의 발달에 힘입어서 들관으로 사냥을 하러 다닐 때에도, 과거의 사람들은 숲이 그들의 보금자리였다. 들관에서는 은신할 곳도 없고, 맹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숲이 제공하는 음식에 국한하여 생활을 하던 때이건, 들관으로 먹이를 사냥하면서 생활을 하던 때이건 간에 숲이 초창기의 인간을 위한 適所(niche)였다는 결론에는 재론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지구의 기후변동으로 빙하기가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은신처가 동굴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이었음이 그들의 도구들로부터 지적된다. 구석기 시대의 동굴생활이란 것은 숲에서 구해온 음식과 연료에 의해서 영위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과거의 생활에 대한 기술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生態系의 원리가 제공하는 기본틀이 있기 때문이다. 기후의 조건이 좋았을 시기나, 빙하기 엄습한 추운 시기이거나 간에 항상 생태계의 원리는 작동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一次生産者가 모여서 하나의 군락을 이루는 곳이 바로 숲이다.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가 인간의 진화과정에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인간은 현재까지 이 森林生態系에서 가장 적응을 잘한 種이라고 할 수 있다. 삼림생태계의 1차 또는 2차소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자신의 보금자리이고 조상의 요람이었던 숲을 베어내는 전략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農業革命이라고 할 수 있다. 숲이 생산해주는 것을 단순히 채집 또는 수렵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음식으로 전환하던 과정으로 부터, 오랜동안 숲이 생산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익힌 사람들이 숲의 생산 역할을 흉내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흉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인구압력으로 인한 식량의 부족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안한 농업혁명이었던 것이다. 즉 농업혁명에 의해서 영양이 좋아져서 인구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된 인구압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적응전략이 농업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한다 (Boserup 1965). 사람들은 이미 추운 곳의 숲에

서 생활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는 점이 간과될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농업에 적합한 기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 방식은 그들이 숲의 생산활동을 흉내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그들은 숲이 식량을 생산하던 장소에서 숲이 생산하는 방식을 차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태계의 위계질서를 보여주는 모형, 즉 먹이사슬로 부터 유추해보면, 일차생산자인 숲의 역할을 인간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숲의 지위를 찬탈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숲이 담당하던 식량생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인간은 숲이 앉아있는 자리를 차지해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숲을 베어내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농업혁명은 숲의 지위를 찬탈한 인간이 고안한 생태계의 위계교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지위만을 담당하던 인간이 생산자의 역할을 시도함으로써, 생태계에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던 것이고, 역사가들은 바로 이 시점을 文明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에게는 어둠계만 여겨졌던 그 “생산”의 과정이 인간에 의해서 열리는 순간이 바로 인간의 창조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文明(civilization)이라는 개념의 기초적인 것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숲을 베어내는 인간의 역할은 숲에서 수동적으로 소비자의 지위에서 음식을 얻어먹던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다. 文明이라는 개념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의미를 갖게된 것이 바로 농업혁명시에 빛어낸 숲과 인간의 역할전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상의 요람이자 자신의 보금자리이던 숲을 베어내고, 그 자리를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인간의 역사는 이제 일만년이 채되지 못한다. 빙하기 물러가고, 농업혁명이 시작하는 두 시기 사이에는 약간의 틈새가 있다. 이 틈새의 기간동안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사람의 생활사에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숲과 인간의 관계사라는 틀에서 조망해볼 때, 이 기간이 숲과 인간의 지위가 전도되는 천이과정이었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오늘날 숲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의 생활로 부터 유추해볼 때, 과거의 사람들은 숲에서 주로 과일과 열매 그리고 구근류를 음식으로 채집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은 부수적으로 사냥을 하여 동물성 단백질을 충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농업혁명

이후 사람들의 식단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한 장본인은 알곡이다. 이렇듯이 사람들이 식단을 위시한 생활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를 우리는 농업혁명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숲에서 살던 생활로부터 숲을 베어내고 들판에서 사는 생활로의 변천이 바로 농업혁명의 효과일 것이다. 농업혁명 이전에 지구상에는 약 62억 헥타르의 삼림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약 43억 헥타르 정도의 삼림이 있다. 숲은 약 3분의 1이 줄어들어 셈이다. 숲이 이렇게 줄어들어 가는 것은 삼림생태계의 축소로 번역되어야 하고, 지구상의 생태계 변화에서 차지하는 삼림의 축소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森林生態系, 즉 숲에는 초목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숲이라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이 있다. 생태계의 변화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 기본요소들의 변화 및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숲에는 일차생산자로서의 숲이 생산활동을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표 즉 토양과 그 모체로 구성된 地質圈(lithosphere)이 존재하고 있고, 생명의 원천으로 인지되고 있는 물이 있는 곳인 호수나 강 그리고 지하수 등의 수계가 포함되는 水文圈(hydrosphere)이 있으며, 모든 생명에게 호흡이 가능하게 공기 즉 大氣圈(atmosphere)과 초목과 동물 및 곤충 그리고 미생물들에 이르는 生物圈(biosphere)이 있다. 사람은 이 생물권에 포함되는 하나의 개체일 뿐이다. 이 네개의 영역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인 체계를 이루는 生態圈(ecosphere)의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삼림 또는 숲이라고 하는 것의 실재는 바로 이 생태권이 포괄하는 범위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태권을 표현하는 상징용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시 숲과 인간의 관계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농업혁명을 통하여 숲의 지위를 찬탈한 인간의 행위들이 생태권이라는 실상속에서 검토하게 되면, 우리는 농업혁명을 통한 인간의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재고하게 된다. 숲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농업혁명은 논리적으로 결코 "혁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이 혁명이라고 한다면, 그 혁명은 인간자신의 자카파멸적인 혁명일 수 밖에

에 없다. 그러나 앞에서 통계숫자가 보여 주는 것처럼, 숲의 얼굴은 이미 3분의 1이나 없어져 버렸다. 작물생산, 목재수확, 가축방목, 연료채취 등을 위한 토지개간의 결합작용에 의해서, 숲을 벗어난 인간은 실질적으로 對 삼림 혁명현상을 벌이고 있다. 농업혁명으로 기초를 닦은 문명이 産業革命이라는 제 2단계의 혁명을 시도하면서, 숲은 실질적으로 혁명에 의한 위기상황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문명의 양대지주인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이 현실적으로 對 삼림 "혁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목하 우리들의 생활경험으로 현현되고 있다. 농업혁명이 숲에 대해서 양적인 혁명을 시도하였다고 한다면, 산업혁명은 이제 바야흐로 질적인 혁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숲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농작물을 심음으로써 숲의 범위를 축소시켜온 인간의 행위는 숲이라는 생태권에 물리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하였지만, 이제 산업혁명의 과정을 숲이라는 생태권을 본질적으로 고단시키고 있다. 숲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대기오염은 대기권을 유린하고 있고, 지질권과 수문권도 연쇄적으로 위협을 당함으로써, 생물권은 존립의 위기를 직면하는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인간이라는 개체의 단위내에서 벌어진 "혁명"들이 이제는 혁명들간의 상호효과와 그동안 "혁명"들이 굴러오면서 자생된 이념까지 작용함으로써, 문명이라는 것은 이제는 인간이라는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에 도전장을 낸 "혁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과학주의에 입각한 "자연극복"의 이념은 인간이 이룩한 최고봉의 문명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 문명이 바로 對 생태계 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을 메카니즘으로 한 인간의 모습은 더 이상 숲 즉 삼림생태계의 종속물이 아니라는 상징구도를 마련하고 있다.

숲과 인간의 관계사를 통하여, 우리는 숲이 단순한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간의 눈을 통하여 보이는 숲은 생산을 위한 원료로서의 자원이기도 하고, 숲은 도구나 기술을 제공하기도 하며, 숲을 자원으로서 간주하는 사람은 숲에 적응이된 기술을 고안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은 숲과의 관계에서 물리적인 사람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자원과 기술에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사람들의 조

직은 물리적인 환경이 요구하고 제공하는 바에 적응이 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숲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관념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숲은 인간의 이미지화 능력에 의해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게 마련이며, 때로는 그 추상화의 정도가 종교적인 이념의 부분에 까지 연장되어 인간의 생활속 깊이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숲은 물리적인 현상으로서만 남아있지 않는 것이 필연적인 인간과 숲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자원, 기술, 조직, 이념 등의 개념들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과 삼림의 관계를 “社會自然體系”(socio-natural)라고 인식할 수 있는 (Bennett 1978 : 22) 설명들의 제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숲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은 인간이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된다는 生態人類學的인 인식구도이다. 숲과 인간의 관계사를 조망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숲과는 가장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념의 차원을 설명틀로 상징해 보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숲과 인간의 사회자연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숲이 사람의 생활양상을 위해서 물리적인 차원에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임에 틀림없고, 인간의 역사속에서 숲과 숲을 구성하는 나무는 상징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도 경배되고 있다. 중국과 동양사상의 근저를 이루는 五行에 나무가 포함되고, 인도에서는 보리수가 불교의 상징을 구성하고, 마야에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목이 신앙의 대상이었고,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에서는 조상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다. 그리고 타이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베리아의 여러 민족들은 전통적으로 수목숭배사상을 갖고 있고,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에서도 숲과 나무에 대한 신앙은 상당히 뿌리가 깊다. 숲과 나무가 조상이기도 하고,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고,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신이 거처하는 성소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은 고대와 전통사회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곧 수목과 삼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수목과 삼림의 지위가 인간의 그것보다 상위에 있으며, 숲의 권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상이 받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을 기

초로 하여 성립된 종교의 형태가 바로 토테미즘인 것이다.

중부 아프리카의 콩고에는 피그미라고 알려진 밤부티(BaMbuti)족이 이투리(Ituri)라고 불리는 삼림지대에 살고 있다. 생태학적으로 말하자면, 이 지역은 열대우림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숲이 그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다. 그리고 숲은 부모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곳 뿐만 아니라 따뜻함과 사랑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제공한다. 숲은 그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잘 대해준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숲이 잠을 자는 동안에 자녀인 사람을 돌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숲이 잠을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사람들의 노래는 숲으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도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숲과 함께 나누어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부티 사람들은 숲을 위해서 “물리모”(molimo)라고 불리는 종교적인 축제를 그들의 가장 큰 행사로 여긴다(Turnbull 1961 : 92).

그러나 숲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숲은 무서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흔히 사람들은 열대우림의 숲을 정글(jungle)이라고 부르며, 그에 대한 이미지는 끈적끈적한 땀을 흘리게 하는 분위기이고, 뱀들이 나무에 걸쳐져 있기도 하고 바닥으로 스물스물 기어다니기도 하는 곳이고, 나무뒤에 숨은 포범이 금방이라도 나를 공격해올 것 같은 곳이기도 하고, 온갖 벌레들이 물고 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글이라고 불리는 숲은 綠色地獄(green hell)일 뿐이다(Bates 1960 : 97). 숲이란 것은 내부인에게는 안식처이지만, 외부인에게는 고통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곳일 뿐이다(Turnbull 1961 : 12). 이렇듯이 숲속에 사는 사람과 숲의 밖에 사는 사람 사이에는 숲에 대한 인식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원래 사람들이 숲속을 자신들의 거처로 생각하고 살았을 때에는 숲에 대한 공포나 고통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베어내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숲을 인식하게 된 이후부터, 사람들은 숲을 일종의 “敵”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숲은 더 이상 요람도 아

니고 안식처도 아니고, 단지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착취의 대상으로 이미지가 전환된 것임에 분명하다. "일반사람들이 숲에 대해서 갖는 전통적인 혐오감은 그 기원이 식민지적 근성에 근거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삼림의 보존과 관리와 식림 지역의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Albin 1977: 109).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농업혁명이후부터 사람들은 숲을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키워왔고, 착취의 대상인 숲은 자연히 사람들로 부터 귀찮거나 쓸데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檀君神話에 등장하는 神檀樹는 바로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조상이 자리를 잡은 요람으로 간주되었던 곳임에 분명하다. 사람들이 신화상으로 수목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신라의 桂林은 정치권력자의 탄생지로서 권력의 상징이 담긴 숲이고, 산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숲이 곧 山林이기 때문에, 시베리아에서의 樹木崇拜는 한반도에서 山嶽崇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山神祭를 국가의 차원에서 모셨고, 마을의 차원에서 모셨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면 진부리의 山祭告祝을 보면(서준섭 1988: 53), 산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과 산림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의 애정과 경배감을 가득하게 담고 있다. 마치 콩고의 프그미족이 숲에 대해서 갖는 느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인간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사회생활을 조정하는 힘이 모두 산림에서 나온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신라 왕관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코티브는 나무와 사슴뿔임을 쉽사리 식별할 수 있다. 나무와 사슴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 바로 숲임을 인식하고, 왕권의 상징인 숲의 이미지로부터 상징화되었다는 것은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숲에서 나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려시대 이후 정확한 風水思想에서는 인위적인 숲의 형성이 지세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인식 아래에서 조탄이 시행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사상은 요즘에도 "洞藪", "쭈" 또는 그와 유사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동수와 쭈는 동일한 것으로서, 경상북도 지방에서 풍수사상의 藏風法과 形局論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을공간과 관련된 지역에 인공조림을 하는 것이고(김덕현 1986; 우생운 1985), 전남지방에서는 마을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우실"이라는 이름의 숲이 존재한다(최덕원 1989). 그리고 神木과 堂山木으로 도세지고 있는 수목의 존재(조선총독부 1919)가 바로 숲에 대한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목숭배사상 또는 산림숭배사상은 조선조의 유교이념과 만나면서 본질적인 변질을 경험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립되는 나무 또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심는 나무 등이 名木으로 알려지고 있고(조선총독부 1919), 正二品松과 같이 나무에 인격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보면, 조선조에서는 사람이 나무나 숲을 통제하거나 조종한다는 사상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유교사상이 동식물의 영적세계에 대한 인식을 평가절하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세계가 동식물의 영적세계보다도 상위에 있다는 철학을 강조했던 영향을 받은 것임에 틀림없다.

단적으로 비유한다면, 신목과 정이품송의 비교에서, 전자가 갖는 수목의 상징체계와 후자가 갖는 수목의 상징체계는 상호전도의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신목의 상징체계는 수목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는 토대미증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고, 정이품송의 상징체계는 인간이 수목의 영적세계를 지배한다는 유교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다. 즉 숲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숲의 신성함과 권력에 대한 인식론을 갖고 있었고, 숲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숲을 자원으로 생각하는 인식론에 입각해서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러한 숲에 대한 인식론의 전환은 숲에 부여하는 상대적인 지위의 격하라는 상징적인 메카니즘의 작동이 중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정복"이라는 신화는 생명과 권력의 원천이었던 숲의 지위를 정복의 대상으로 격하시켰다. 그 격하의 과정이 바로 自然觀의 변천에서 이해할 수 있고, 변천하고 있는 자연관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은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자연환경을 資源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업적이 기록되는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생명과 권력의 원천이었던 자연이라는 숲에게 자원이라는 격하된 지위를 부여하였고, 자원이라는 격하된 지위를 보

유한 숲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숲과 인간의 관계사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3. 식민주의와 삼림파괴

사람들이 식량의 생산을 위해서 농경을 하는 것이 삼림의 존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미 일반적인 생태계의 기술에서 본 것처럼, 삼림이 농경의 근본이 되고 있으며, 삼림체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숲이 보유하는 물이 농업의 기초를 이루고, 숲의 존재가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을 유지시킬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던 전통적인 농업방식에서, 사람들은 농토가 보존될만큼만 숲을 베어냄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생태계의 균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고 믿을 수는 없지만, 그들은 생태계의 운영법칙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을 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숲에 의존한 농업방식이 전통사회에서의 영농이었다고 하며, 그들이 숲에 의존해서 식량을 얻어내는 방식의 영농을 하는 범위내에서는 숲이 결코 착취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즉 유럽의 상업자본이 착취의 대상인 원자재를 찾아서 원거리 항해를 시작한 이후, 이 세상의 숲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식민지의 확보는 상업자본을 위한 원자재 수집과 직결되어 있었고, 숲은 이 상업자본이 찾아나서는 목표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세밀차적인 희생물이 되기도 했고, 숲 그 자체가 식민도국과 그 주변지의 형성을 위한 착취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제 몇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삼림파괴의 주범이 植民主義일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해보기로 한다.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의 수도는 보고타(Bogota)이며, 이 지역은 해발 2,500~2,600 미터에 있는 고원지대이다. 원래 이곳은 칩차(Chibcha)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살던 곳으로서, 스페인사람들은 칩차族이 살던 곳을 탈취하여 수도를 만든 셈이다. 스페인사람들은 토질이 좋은 곳들을 골라서 중세 유럽식의 라티퐁디아(latifundia)를 건설하고, 이 대농장에 유럽사람들을 위한 실탄과 커피를 재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유럽식

의 도시를 형성함으로써, 식민도국을 위한 주변지를 건설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거처하던 살기좋은 곳은 모두 도시로 변화였고, 원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곳은 모두 대농장지대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대농장을 기반으로 하는 플란테이션의 경영은 더욱더 토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숲은 베어졌고, 숲에서 베어진 목재들은 도시의 건설에 이용되었다. 원주민들은 스페인사람들에 의해서 거처와 농지를 잃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숲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숲을 일구어서 농경지를 만들고 새로운 동네를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 스페인의 식민정책이 실시되면서 콜롬비아의 숲은 이중적인 人災를 입게된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보고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들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힘입어서 확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도시의 확장은 대량의 목재를 요구하게 되었다. 결국 열대우림은 대규모의 벌목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300년 내지 400년간의 식민지경영을 경험하면서, 콜롬비아의 숲은 끊임없는 산림파괴 현상이 이어져 왔다. 지금 콜롬비아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농지의 토양유실과 용수결핍이며, 그 원인이 산림파괴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즉 숲에 대한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발생한 연쇄반응의 결과가 생성시킨 문제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거의 동일한 식민지적 경험을 한 카리브 지역과 중앙아메리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Weyl 1975: 42). 원주민들은 식민지 침략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깊은 숲속으로 밀려들어가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숲을 훼손하는데 일조를 가하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은 유럽을 제외한 이 세상의 도처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숲을 자원으로써 착취하는데 가장 공헌을 많이 한 것이 바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식민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식민지 착취의 결과로 가장 못살게 된 인도의 빈곤역사도 이러한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네바다주에는 쇼쇼니(Shoshonee)族이라고 불리는 "인디안"이 살고 있다.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은 소위 대분지(Great Basin)라는 곳으로서 비교적 건조한 지역이기도 하다. 백인들과 접촉한 이후 많은 쇼쇼니 족들은 도시지역으로 이

동하였으나, 소수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잣나무 지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잣나무에서 생산되는 잣(pinon nut)을 주식으로 삼아왔고, 이 잣나무가 성장하는 땅을 그들의 "어머니"로 신성시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까지도 미국의 기업적인 목장과 위락지의 경영은 확장일로에 있었고, 이러한 목장과 위락지의 확보를 위해서 쇼쇼니의 지역이 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대형트랙터 두대가 일조가 되어서 100미터의 길이가 되는 최사술을 끄는 방식으로 쇼쇼니의 잣나무 지대가 파괴되었다. 쇼쇼니 족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백인들의 놀이터(특히 골프장) 제공과 제삼세계로 팔려나갈 최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식이 생산되고 신성시되는 잣나무들이 최사술의 제물이 되어 갈려나가는 것이다.

1860년대에 맺어진 연방정부와 부족간의 조약에 의하더라도 이 지역은 쇼쇼니족의 소유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쇼쇼니족들로부터 이 잣나무 숲을 구입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토지대금과 배상한다는 명목으로 쇼쇼니족에게 현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어머니"인 숲을 팔지 못하는 쇼쇼니족으로부터 철저히 배척을 당하였다. 이 사건은 현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의 연대를 추구하는 미국인디안운동(American Indian Movement, AIM)의 전기를 이루는데 충분하였다. 즉 쇼쇼니족의 숲 회복운동이 바로 백인에 의해서 간헐하는 원주민들의 인간해방과 민족해방운동의 기초가 된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미국이라는 국가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인 쇼쇼니족 즉 第四世界의 자기발견운동이 일종의 생태적인 환경운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례를 보여준다. 쇼쇼니족이 있는 숲의 보호가 곧바로 쇼쇼니족이라는 인간의 보호와 직결된 것이며, 이 사례는 앞으로 內部植民主義에 저항하는 소수민족이 지향해나갈 수 있는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운동으로부터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었고, 숲속에서 숲과 공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적인 삶이란 것의 실재를 경험하고, 共同體라는 개념의 발견으로부터 조각난 인간의 공동체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과정을 인식함으

로써, 生態運動(ecology movement)이 社會運動의 강력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적으로 보여준다.

쇼쇼니족의 잣나무 숲이 보호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얻은 경험은 바로 자기발견에 의한 인간의 해방이다. 결국 숲과 인간의 관계는 이토록 밀접하다는 것을 웅변해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거의 반대의 방향으로 치달고 있는 것이 주로 관찰되고 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 상류에 살고 있는 야노마모(Yanomamo)族은 원래 현재 보다는 생계조건이 더 나은 강가에서 살고 있었으나, 백인들의 식민지 개발정책에 밀려서 지금의 叢地에 살고 있다. 이곳은 전형적인 열대우림지역으로서, 야노마모 족 이외에도 많은 원주민들이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1966년부터 1975년 사이에 브라질 정부는 경제적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마존지역을 조직적으로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파괴된 삼림지역은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총 벌채면적은 11,469,751 헥타르, 그중에서 목장건설을 위해서 사용된 면적은 4,375,271 헥타르(38.0%),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면적은 3,075,000 헥타르(26.8%), 작물재배면적은 3,519,480 헥타르(30.7%), 식림면적은 500,000 헥타르(4.4%)로 나타났다(Davis 1977: 148). 개발과정에서 열대우림에 살던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있는 거주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피해서, 플랜테이션과 목장을 위해서 둘러쳐지는 철조망을 피해서 오지로 피난을 갈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원거주지로 부터 뿌리가 뽑힌 원주민들은 생존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면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에 감염됨으로써 대규모로 서서히 사망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숲이 보호된 미국의 쇼쇼니족과 숲을 잃어버린 브라질의 야노마모족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제3세계에 속한 소수민족의 운명은 제1세계에 속한 소수민족의 운명에 비해서 더욱더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전 경수 1985).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 외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숲으로부터 강제이주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부터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숲의 정치경제학적

인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된다. 즉 식민주의를 기조로 하는 삼림의 개발은 삼림자체의 파괴 뿐만 아니라, 그 숲속에 사는 인간마저 파괴하게 된다고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삼림파괴가 곧 인간파괴라는 논리는 이미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실시한 바 있는 군사작전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정글에 숨어사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미군은 베트남의 정글지대에 대규모의 제초제(Agent Orange 등)를 살포한 바 있다. 그 결과로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는 인도지나반도는 엄청난 생태적 파괴와 種族抹殺(ethnocide)을 경험했다(Lewallen 1971; 전경수 1989). 숲밖에 사는 사람들은 자원이 필요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숲을 베어낸다. 이 과정에서 숲밖에 사는 사람들은 숲속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숲의 정치경제학에 매개되어 있는 식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삼림파괴의 전락으로 진행되는 식민주의는 목하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원에 굶주린 多國籍企業들과 그 연망체계는 목재와 지하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삼림을 파괴하고, 그 연망체계에 종속이 되거나 밀려져 되어 못사는 곳에서는 삼림에의 의존이 더욱더 심화됨으로써, 지구에 존재하는 숲의 훼손 속도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Williams 1989).

搖籃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숲은 이제 資源의 이미지로 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숲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의 전환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흉이 바로 유럽사람들이 시작한 팽창적인 식민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유럽인들의 부를 위해서 많은 삼림이 파괴되어온 것이 소위 문명발전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유럽의 문명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숲에 의존하여 숲속에 살던 사람들은 삼림의 파괴에 의해서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많은 원주민들이나 지금도 사리질 위기에 처한 원주민들은 이른바 경제기적과 문명발전의 희생물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삼림회복의 필연과 전략

쭉박에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면, 이것이 깨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의 힘에 이 쭉

박이 견딜 것인가? 조그만 쭉박을 놓고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지구의 생태계가 "깨어진 쭉박"이 될 가능성을 두고 사람들은 여러가지의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쭉박"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은 인류의 생존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쭉박"은 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이 "쭉박"이 어느 정도까지의 힘에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도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쭉박"은 깨어질 수 있다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쭉박"에 가해지는 힘의 양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지구의 생태계에 관심을 갖는 현상이다. 본질을 외면했기 때문에, 논의는 공전할 수 밖에 없고, 지엽적인 문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지구를 쭉박에 비유한 필자의 의도는 목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環境問題에 대한 문제의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省察(성찰)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구의 환경문제가 안고 있는 심각성을 인식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거론하는 것이 바로 삼림생태계라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삼림이 갖고 있는 환경적인 중요성에 비추어서 뿐만 아니라, 숲이란 것은 인간의 요람이었다는 것도 인식되어야 할 내용이다. 생태계로서의 숲과 그 숲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양식에 대한 인식은 인류학자들로 하여금 社會自然體系라는 모형으로써 숲의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생태계로서 숲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사회자연체계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문제에 있어서 숲의 중요성과 직결되고 있다. 생명과 권력의 원천으로서 이해되는 숲의 의미가 인식되기에는 아직도 경제제일주의적인 資源論이 너무나도 강하게 남아있다. 이 자원론이 워낙 강하게 인간의 경제에 힘을 가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원론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자체가 생활이념이 되어서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엄청난 하나의 현실이다. 인간의 생존과 경제를 위해서 숲을 자원으로 생각하는 이 자원론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권력의 원천으로 이해되는 숲의 본질적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숲

의 存在論은 의미퇴색이 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딜레마라고 생각된다.

삼림생태계 또는 임지생태계로 불리는 숲이 생태계 순환에서 제1차생산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숲은 인간과 생명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삼림전문가들은 숲으로 부터 인간이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의식주와 연료로 부터 도구와 휴식에 이르기 까지 열거하고 (Sharpe, Hendee, & Allen 1976 : 4-11), 그러한 개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총체적 삼림”(total forest, McCabe & Mines 1974 : 62)이라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총체적 삼림이라는 개념도 궁극적으로는 자원론의 틀에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휴식과 여가공간으로서의 숲이라는 관광자원론, 산업생산을 위한 원료의 제공이라는 산업자원론 등은 궁극적으로 숲이라는 것을 착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숲의 존재론을 알세움으로서, 철저한 생태주의에 입각한 보존론을 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거론한 자원론의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철저한 보존론자들은 경제적인 후진지역의 삼림보호를 위해서 “연성기술”(soft technology)만을 찬양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들은 경제제일주의에 의해서 이미 물이든 숲속의 원주민들이 바라는 문명을 원주민들로 부터 차단시키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UNESCO/FAO 1978 : 440). 존재론에 입각한 보존론자들과 자원론에 입각한 개발론자들 사이에 항존하고 있는 이 갈등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취할 입장은 어떤 것일 수 있으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생태계의 순환과정에서 숲의 역할이 갖고 있는 중대성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숲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라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숲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은 생존위기의 벼랑길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마저 들고 있는 것이 현금의 상황이다. 따라서 생태계의 원리를 고려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인간이 느끼고 있는 존재의 위기감 때문이라도 파괴된 삼림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상최대의 과제가 되어 있음에

분명하다. 대기속에 증가되어가는 이산화탄소의 축적현상을 완화시키는데는 삼림 이외에 어떤 것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지구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키는데에도 삼림이 가장 적합한 수용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造林(afforestation) 활동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 분명하다. 석유를 태워서 공장을 가동시키려는 기업가도 대기중에 충분한 산소가 없이는 석유가 연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석유값만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대기중의 산소값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말장난으로 지나쳐버리 단계를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삼림전문가들은 생태계의 운영원리로 부터 터득한 保續收穫(sustained yield, Nachhaltigkeit)의 개념을 삼림회복의 전략으로 숙지하고 있다 (Wiebecke & Peters 1984 : 111).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삼림에 관련된 유형무형의 효과를 위해서 지속적이고도 최적인 공급을 추진시키려는 노력으로서의 보속수확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자원론의 결점을 보완하고 존재론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 전담임에 분명하다. 깨어진 부분이 워낙 많이 노출되어 있는 “쪽박”이 쪽박으로서의 모습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진 부분들을 보수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깨어진 쪽박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처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깨어진 쪽박을 보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바로 이러한 입장을 위해서 제안된 것이 보속수확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생태계를 고려하고 인간의 삶을 겨냥한 보속수확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안된 것들 중의 하나가 “混農林業”(agroforestry)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의 보속적인 증가, 토양, 수계, 동식물상 등을 포함하는 자연자원의 보존, 합리적 이용, 에너지보존과 재생과정에 의한 자연자원의 관리, 그리고 외부의 압력 때문에 멸종가능한 희귀자원을 위한 대체물의 발견을 목표로 하는 혼농임업체계 (von Maydell 1984 : 106)는 전통적인 자원론으로부터 결별하고 전향적인 존재론의 입장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직면한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문제, 인간과 가축에게 영양 공급을 해결한다는 문제,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산업을 고려하여야

하는 문제, 자연자원의 보호로부터 환경을 증진시켜야 하는 문제, 그리고 농업과 삼림이 연결된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하는 문제들이 고려되는 혼농임업체계(Steinlin 1979)는 깨어진 쪽박을 보수해야 하는 사정과 깨어진 쪽박으로라도 물을 떠야 하는 사정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 혼농임업체계와 같은 절충적인 대안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면, 삼림생태계는 스스로의 회복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되면, 숲의 존재론은 이상으로서만 남지 않고 현실로 등장하는 길이 모색될 것이다.

이 혼농임업체계와 같은 대안들이 성공할 수 있는 데에는 한가지의 필연적인 전제조건이 있다.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삼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데는 인간의 노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그 파괴과정에서 상실되고 산일되어버린 인간의 발견도 이 삼림의 회복과정에 투입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둔 산림경제학자들은 “社會林業”(social forestry)이라는 개념을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제안하고 있다. 그 단어의 개념은 혼농임업체계의 개념도 포함하고 지역개발과 주민참여의 임업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임업은 실천을 위한 기본요소로서 주민 참여와 기술혁신을 필요로 한다(Gregerson 1988). 생태계에서 터득된 보육수확의 개념이 사회임업의 전략으로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는 것은 자원론으로 파괴된 삼림의 회복을 의미하며, 현실성없는 이상으로서만 남아 있는 존재론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간을 위한 교육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 가능성의 눈을 갖게 되는 인간은 소생하는 숲으로부터 생명의 원천인 숲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초초니족에서 본 것처럼 소생하는 숲의 인식들로부터 사라져가는 인간의 모습을 재생하는 인식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생태계 순환의 근거를 이루는 숲의 회복은 곧 그 숲을 의존해서 생태계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요인들의 회복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결국 숲의 생명과 권력이 회복될 때, 인간의 존재는 선명하게 확인되는 셈이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삼림회복이라는 것은 숲의 존재론을 인식하고 생태계로서의 숲의 본

질적 의미를 재생하려는 궁극적 목적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임에 불과하다. 삼림회복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 숲밖에 사는 사람들로 부터 상대적 차별을 받고 착취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부터 숲속에 사는 사람이 숲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부터 벗어나고 숲과 더불어 공동체를 회복하는 상황에 이르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는 인간회복에 이르는 삼림회복의 궁극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원론은 존재론속으로 묻혀들어가지게 될 것이며, 숲밖에 사는 사람들은 숲속에 사는 사람들이 걸지고 있는 인간과 삼림의 공동체적인 삶을 이해하고, 그 공동체적인 삶의 재생을 위해서 숲속의 삶이라는 공동체운동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이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이 바로 생태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자연체계의 현실적인 모습이고, 사회자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과 삼림의 관계는 파괴적인 상황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비추어줄 수 있는 거울로 등장하게 된다. 인간과 삼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자연체계는 항상 어떤 상황하에서도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삼림의 회복은 곧 인간의 회복으로 직결된다는 논리가 당연한 귀결이다. 야노마모족이 처한 상황은 이 사회자연체계가 공동체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초초니족이 추구하는 상황은 공동체의 재생을 보여주는 사회자연체계의 얼굴을 교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단계의 전략으로서 제안된 것이 사회임업이라고 생각되며, 이 사회임업은 궁극적으로 인간회복이라는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이 더 강하게 심어져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

5. 요약과 결어

필자는 社會自然體系라는 生態人類學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인간과 숲의 관계와 그 관계에서 벌어진 상황 및 미래를 위한 이상론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인류의 조상이 숲속에서 살림을 시작하여, 그 숲을 기반으로 그들의 터전을 넓혀나왔음이 인정되고 있다. 숲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숲은 보금자리이고, 생명과 권력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숲속에 사는 사람들의 文化라고 설명되었다. 이 숲에 의존하여 거기서 얻은 힘으로 인간은 종을 번식시켜 왔으며, 그의 세력을 확장해왔다. 숲속에 살던 사람들이 숲밖으로 터전을 옮기면서, 숲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이 숲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숲의 존재론을 망각하고 숲에 대한 새로운 개념인 자원론을 개발하였다. 인간의 업적을 보여주는 文明을 위해서 요람이었던 숲은 착취의 대상인 자원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숲과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던 인간의 모습은 자원론의 득세와 함께 숲밖에서 숲과 공동체적 삶을 청산하는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은 인간과 숲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한 상징으로 나타난다.

숲속에 사는 사람은 자원론을 으뜸의 생존원리로 삼을 수가 없다. 자원론이라는 것은 대상물을 착취하는 전략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원론이 대두되는 상황하에서는 숲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의 생존기반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숲속에 사는 사람들은 숲이 갖고 있는 생명과 권력의 원천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숲속에서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인간이 생태학적 질서에서 순응하고 있는 상황을 연출한다. 그러나 숲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숲의 생산능력을 알기 때문에, 숲의 생산력을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숲을 인간 문명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고용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것이 식민주의와 직결되어 있음은 구체적인 사례로서 밝힌 바가 있다. 숲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고용하는 생존원리는 자원론에 의해서 영위되고, 그 자원론은 식민주의라는 또 다른 생존전략을 창출하였다. 결국 숲속에 사는 사람들의 존재론은 숲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원론에 의해서 植民化의 도구가 되었고, 숲의 파괴와 함께 숲속에 사는 사람들은 숲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종속물이 되어버렸다.

과학주의에 입각한 기술적 낙관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인간사회는 '進歩'의 댓가로서 생태적 비판주의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 생태계는 인간에게 생태계의 법칙을 위반했다는 경고장을 발부한지 오래되었다. 위험신호가 가장 먼저 그리고 심각하게 나타난 곳이 인류의 요람이었던 숲이라는 것은 비극이다. 독하 연출되고 있는 이

슬픈 연극의 본질적인 의미가 제대로 관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데에는 적어도 두가지의 연관된 문제점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관객들은 그 슬픈 연극이 연출되고 있는 무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제삼자라는 인식을 깊이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비극은 숲에 관련된 것이지만, 인간인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는 것이고, 그 비극은 인간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극의 주인공은 숲속에 사는 사람일 뿐이지 숲밖에서 사는 사람인 나와는 상관이 적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현상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이 비극을 비극이라고 여기는 관객들조차도 이 비극이 보여주고 있는 무대의 전면에 나타난 부분만을 생각하고 그 후면부에 내재되어 있는 비극적 요소의 과정에 대해서는 심각한 관찰을 시도하고 있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숲에서 발견되는 생태계의 파괴현상은 이미 그러한 증거를 노출시키기 위한 엄청난 과정이 내재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작동되고 共同體 體體의 면모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인간과 삼림 사이에 매개되어 있는 공동체적인 삶을 해체하는 과정에만 개입해온 인간이 미래를 위한 공동체 회복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단지 현재 시도 되고 있는 방법이란 것은 일종의 시행착오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들이 지향하는 인식론적인 정향이 자원론 보다는 존재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희망이 있다.

삼림파괴에 관련된 비극의 의미가 파괴의 주인공들에게 정확하게 인식되고, 그러한 인식이 사회자연체계의 구도를 이해함으로써, 인간과 삼림의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농임업체계라는 전략이든, 사회임업이라는 전략이든, 삼림회복에 관련된 노력들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인간과 삼림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적인 인식 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숲은 산업발전을 위한 자원이라는 자원론이 궁극적인 삼림회복의 목적이라면, 이것은 제2의 비극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인간에게 잘 교육이 된 바 있는 숲의 존재론이 곧 삼림회복의 최종목적일 때, 삼림과 인간이 함께 이루어내는 공동체는 재성될 수 있고, 이

공동체의 구도 속에서 인간회복은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숲속에 사는 사람이 연출해 내는 공동체적인 삶이 숲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숲밖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출한 비극 속에서 자신들이 관객으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주)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분의 도움과 격려가 커다란 힘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農科大學 林學科의 李 敦求 교수와 國立民俗博物館의 李 鐘哲관장에게 고마운 말씀드린다. 본 논문에서 잘못된 부분은 전적으로 필자 책임 소관이지, 그분들에게는 하등의 책임이 없다.

참고문헌

- 김덕현. 1986. "傳統村落의 洞藪에 관한 연구". 地理學論叢 13 : 29-45.
- 서준섭. 1988. "강원도 산간지역 구비문화연구". 江原文化研究 8 : 49-70.
- 우생윤. 1985. 상징경관의 배치원리와 마을사회의 한마음 의식. (안동대학 민속학과 학사논문).
- 전경수. 1985. "식민주의와 인류학". 오늘의 책 7 : 3-29.
- _____. 1989. "월남전의 화학무기 황색고엽제의 후유증". 사회와 사상 1989년 7월호 : 323-342.
- 조선총독부. 1919. 朝鮮巨樹老樹名木誌. 日韓印刷所.
- 최덕원. 1989. "우실(村垣)의 신앙고". 韓國民俗學 22 : 109-122.
- 최승순. 1988. "강원도 山祭연구". 江原文化研究 8 : 29-47.
- Albin, Rudiger. 1977. "Timber in Chile and the Importance of Afforestation as a Source of Commodity Supply".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5 : 102-111.
- Bates, Marston. 1960. The Forest and the Sea. New York : Vintage Books.
- Bennett, John W. 1978. The Ecological Transition. Oxford : Pergamon Press.
- Boserup, Ester. 1965. The Conditions of Agricultural Growth. Chicago : Aldine.
- Davis, Shelton H. 1977. Victims of the Miracle.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Gregerson, Hans M. 1988. "People, Trees, and Rural Development". Journal of Forestry 86(10) : 22-30.
- Lewallen, John 1971. Ecology of Devastation : Indochina. Baltimore : Penguin.
- McCabe, Robert H. & R. F. Mines (eds.) 1974. Man and Environment.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Sharpe, Grant W., Clare W. Hendee, & Shirley W. Allen 1976. Introduction to Forestry. New York : McGraw-Hill.
- Steinlin, Hansjurg. 1979. "The Role of Forestry in Rural Development". Applied Sciences and Development 13 : 7-26.
- Turnbull, Colin. 1961. The Forest People. New York : Clairon Book.
- UNESCO/UNEP/FAO 1978. Tropical Forest Ecosystems. Paris : UNESCO.
- Von Maydell, Hans-Jurgen. 1984. "Possibilities of Increasing the Human-Ecological Carrying Capacity of Semiarid Tropical and Subtropical Mountain Regions by Agroforestry Land-Use Practices". Applied Geography and Development 24 : 102-111
- Weyl, Richard. 1975. "Forest Destruction and Soil Erosion, a Problem of the Balance of Nature".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1 : 37-43.
- Wiebecke, Claus. & Wiebke Peters 1984. "Forest Sustention as the Principle of Forestry".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20 : 109-115.
- Williams, Michael. 1989. "Deforestation : Past and Pres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3(2) : 177-208.